

축하글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

대한사랑은 지난 몇 년 동안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조상의 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방문강연을 해왔습니다. LA 소재 한얼연구소는 심도깊은 연구와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통해 고조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온 단체입니다. 사우주 배일로 대학 박준환 이사장님의 후원으로 지난 23년을 한결같이 한민족 정체성 찾기에 힘써온 한얼연구소가 서울 한복판에서 제 23차 한얼학회를 개최하게됨을 축하드립니다.



桓人 김한민
영화감독,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회 감사

영화 소재를 찾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오던 중에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과의 인연을 통하여 처음으로 홍산문화 흑피옥 옥기를 접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의 후손으로서, 흑피옥기에 담겨있는 고대인의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등을 언젠가 제가 만드는 영화의 소재로 쓰고싶은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흑피옥 연구가 세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한국과 미국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23차 한얼학술대회를 통해 흑피옥에 담긴 고조선의 역사와 언어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금화
한중 흑피옥 협회
회장

한얼연구소 김철호 소장님은 재외동포로서 지난 수십 년간 흑피옥을 발굴하고 연구해온 한중 흑피옥협회의 노고를 인정 해준 유일한 분입니다.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얼연구소와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어 무한히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김호기
한중 흑피옥협회
연구원

흑피옥의 역사적 의미와 고고 유물로서의 가치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흑피옥을 주제로한 한얼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흑피옥이 널리 알려지고, 흑피옥이 발굴되는 홍산문화, 요동 지역을 근거로 세워진 고조선 국가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경 삼일신고의 한얼로 21세기 배달민족의 신명을 펼치자."